

소유하되 모든 이와 함께 나눔이 참된 무소유

문수사 주지 혜정 스님



혜정 스님은 ... 1931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난 스님은 1948년 문경 봉암사에서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중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0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해인사 승가대학을 마치고 중앙종회의원, 국제포교사, 동화사 주지 등을 역임한 스님은 2007년 원로위원에 선출됐다. 27년간 문수사 주지 소임을 맡은 스님은 가람 수호와 함께 수행과 포교를 한결같이 실천해 왔다. 현재 도선사 조실, 문수사 주지로서 15년간 서울구치소 재소자를 교화하고 북한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며, 후학을 인도하고 있다.

동쪽으로 보현봉, 서쪽으로 비봉이 절을 감싼 아름다운 경관, 저 멀리 남쪽으로 한강을 지나 관악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삼각산 문수봉(715m) 아래 등지를 틈 문수사. 1109년(고려 예종 4년)에 탄연(坦然) 스님이 창건한 천년고찰 문수사는 오대산 문수사, 고성 문수사와 함께 우리나라 문수보살의 3대 성지로 잘 알려져 있다.

기도성지로 더욱 명성이 난 일화로는 아이러니하게도 개신교 장로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어머니가 이 절에서 백일기도를 한 뒤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명성황후가 불안한 대웅전 문수보살좌상과 영친왕 이은의 부인 이방자 여사가 불안한 석가여래좌상이 모셔져 있는 것도 영험한 기도 치임을 보여준다. 게다가 조계종의 중흥조인 태고 보우 국사가 이 절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실은 문수사가 문수보살의 지혜를 잇는 보리도량임을 웅변한다.

사시사철 참배객과 등산객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문수사는 27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 소유의 암자로 퇴락한 곳이었다. 무너져 가던 문수사를 인수해 조계종 공할로 등록한 이가 바로 혜정 스님이다. 문수사 주지 소임을 맡은 이후 스님이 중창불사를 하며 들인 불사금만 해도 40여억 원에 달한다. 홀로 공부하고 포교하며 불사한 지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이 흐른 지금, 문수사는 전통사찰로 지정됐고 2800여 평에 달하는 전통사찰보전지역도 확보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혜정 스님이 혼자 힘으로 묵묵히 일하고 정진하며 가람수호와 포교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시절 선(禪)과 교(敎)를 깊고 넓게 공부한 공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대시교(一代時敎)와 선어록을 두루 연구하고 제방선원과 태국, 일본의 선원에서 참전한 실참이력이 어떤 상황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과 지혜를 갖추는 밑거름이 됐다.

선교에 막힘 없이 공부한 혜정 스님은 다양한 수행법을 직접 체험해 보고 당신에게 맞는 방법을 택해 평생 일과 수행, 포교를 겸전하며 정진해 왔다. 세상살이에 쉴 틈이 없는 불자들에게 스님은 어떤 수행방법을 권할까? 팔순을 바라보는 고령에도 삼각산을 오르내리며 포교와 불사 일정으로 바쁜 혜정 스님을 어렵게 뵈고 질문을 드렸다. 곧바로 자상하고도 명쾌한 답이 돌아온다.

“모든 수행법은 방법이 다르고 빠르고 느린 차이가 있지만 깨달음이란 귀결처는 하나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KTX나 버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러 방법이 있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간혹 선의 경우 화두는 1700 공안에 달할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화두를 선택해 꾸준히 해나 가면 됩니다. 저는 하나의 주력(呪力)을 선택해 부지런히 염하면서 ‘주력하는 이것이 무엇이고?’ 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옴마니반메훬’ 주력을 할 경우 ‘옴마니반메훬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렇고?’ 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출가와 재가의 모든 수행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도자는 원력, 참회, 정진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영명연수 선사의 <종경록(宗鏡錄)>에는 ‘말세 중생은 참회정진을 해야 수행이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절을 많이 하신 연수 선사는 모든 중생이 함께 성불하자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절 한다’고 하셨습니다. 입과 더불어 마음으로 참회하며 참된 부처님 정신으로 사위, 공가, 인류 모두 행복을 느끼도록 원력을 세우야 합니다. 이복 사람들은 물론 기독교와 같은 이교도인들도 잘 되도록 발원하는 것이 참된 원력입니다.”

“최근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는 구제역 파동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재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100살이 넘는 의사가 TV에 나와서 ‘육식을 내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피가 흐려져 혈관이 막혀 많은 병이 생긴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평소 육식을 줄여 마음을 청정히 하고 육식 대신 채식(菜食)을 하되, 적게 먹으며 많이 걷는 것이 좋습니다. 육식을 하면 사나워지지만, 채식을 하면 정신과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져 복과 운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맑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우주의 정당한 기(氣)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밥, 물, 에너지, 공기를 비롯한 자연과 우리는 동체(同體)입니다. 우주법계와 우리는 한몸이어서 나 혼자 잘 살 수는 없어요. 불교계가 4대강 공사를 반대하고 생태계 보전을 주장하는 것도 생명과 문화 재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지혜와 복 함께 닦음이 보살행 베풀려면 뭐라도 가진게 있어야

요즘도 교도소는 물론 가톨릭수도원, 사회단체 등 종교와 계층을 초월한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는 혜정 스님의 포교 원력은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불교도대회에 다녀온 은사 청담 스님이 영어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받았을 가리지 않고 영어를 공부해 국제포교사가 됐으며, 이후 태국과 일본에서 공부하며 불교교류에도 일조했다. 팔순을 바라보는 노구에도 15년째 매일 서울구치소 재소자들을 위해 방문하며 전국 사찰의 방문 요청도 마다하지 않는다. 혜정 스님은 정치인이나 공무원, 군인, 학생을 비롯해 각계 각층의 많은 사람들을 불법의 대대로 이끌었지만, 무엇보다 재소자 교화를 하면서 더욱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하셨다.

“정부에서 10여 년 전에 재소자 교화의 공로를 인정해 훈장을 주려했는데, 사양한 적이 있습니다. 수행자가 명예와 이익을 위해 포교 하는 건 아니니

가요.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마지막으 하신 설법을 담은 <법화경>의 핵심인 ‘관세음보살품’ 즉, <관음경>을 평소 좋아해서 ‘관세음보살 발원문’을 지은 적이 있는데, 사형수가 감형을 받아 출소한 뒤 작곡가가 돼 발원문 가사에 맞춰 작곡을 해서 노래로 만들어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남녀의 모습을 띤 우주 실상(眞相)의 참모습을 뜻하는데, 중생이 염원하면 모든 몸을 나눠 자비행을 하십니다. 재소자 교화를 통해 중생의 마음 속에 간직된 불성이 조금도 물들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수행과 보살행이 차별 없는 구도행이라고 한다면, 일정 시간을 정해 정진하기 어려운 재가자들은 생활 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구도행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보살의 바라밀행도 지혜가 없다면 복 짓는 선업(善業)에 머물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혜정 스님은 깨달음을 향한 보살행을 구체적인 일상과 결부시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지혜와 복을 함께 닦아[福慧雙修] 남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베풀려면 원가 있어야 하기에 무소유(無所有)의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참된 무소유는 아무 것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소유는 하되 모든 이와 함께 나누라는 뜻입니다.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오히려 가족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길인에게 무엇을 줄 때도 물건을 함부로 주지 말고, 반드시 굵고 따뜻한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는 사람이 결손하고 정성을 다하면 받는 사람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가들은 소유관념에서 관계개념으로 바뀌 사회와 국가와 더불어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형과 함께 문경 봉암사에 놀러갔다가 성철 스님을 뵈고 출가했다는 혜정 스님. 지혜와 복을 함께 닦는 구도자의 길로 들어서려면 틀림 없이 남모르는 선근(善根)이 있었을 터이다. 당대의 선지식을 너무나도 쉽게 만난 출가 인연이 궁금해졌다.

“그때 봉암사에서 성철 스님을 뵈고 장삼이란 옷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런 옷 입고 무엇을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면서 형인가 어려운 희열을 느꼈지요. 세계불교도대회에 다녀온 은사 청담 스님이 영어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받았을 가리지 않고 영어를 공부해 국제포교사가 됐으며, 이후 태국과 일본에서 공부하며 불교교류에도 일조했다. 팔순을 바라보는 노구에도 15년째 매일 서울구치소 재소자들을 위해 방문하며 전국 사찰의 방문 요청도 마다하지 않는다. 혜정 스님은 정치인이나 공무원, 군인, 학생을 비롯해 각계 각층의 많은 사람들을 불법의 대대로 이끌었지만, 무엇보다 재소자 교화를 하면서 더욱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하셨다.

“한암 스님은 수행자들과 함께 일상을 같이한 분이셨습니다. 늘 대중과 함께 빗자루를 들고 청소도 하시고, 흐르는 물도 아껴 쓰시고 당부하셨지요. 성철 스님은 아는 것이 많아서 무척 배학하셨습니다.”

“한암 스님은 수행자들과 함께 일상을 같이한 분이셨습니다. 늘 대중과 함께 빗자루를 들고 청소도 하시고, 흐르는 물도 아껴 쓰시고 당부하셨지요. 성철 스님은 아는 것이 많아서 무척 배학하셨습니다.”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www.buddhashopping.co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대량구입시 전화주십시오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 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 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농 협: 121068-56-042256 [예금주: 강태규]
◆우체국: 612416-02-031008 [예금주: 강태규]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카달력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등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림달라동
30cm

연화만월등
(한색, 분홍, 빨강, 파랑, 초록)

비단전등
10.5cm
12cm

전통복등색상▶
빨강, 파랑, 초록
흰색, 분홍, 노랑

• 공단등(6cm) @2,700원(100개이상)	• 바림등(6cm) @2,700원(100개이상)
• 공단등(8cm) @3,300원(96개이상)	• 바림등(8cm) @3,300원(96개이상)
• 공단등(10.5cm) @5,500원(24개이상)	• 바림등(10.5cm) @5,500원(24개이상)
• 공단등(13cm) @12,000원(12개이상)	• 바림등(13cm) @12,000원(12개이상)
• 공단등(20cm) @35,000원(4개이상)	• 바림등(20cm) @35,000원(4개이상)
• 비단만월등(특) @170,000원(100개)	• 칼라바림등(30cm) / 칼라공단등(30cm)
• 영가만월등(100개) @170,000원(1Box)	
• 장 만 월 등(100개) @200,000원(1Box)	
• 연화만월등(100개) @240,000원(1Box)	
• 전 통 복 등 (50개) @150,000원(1Box)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1Box)	
• 비단전등(10.5cm, 12cm) @340,000원(100개)	

방수전선간격(50구)

22cm / 25cm / 30cm 50cm

1m / 2m * 기타주문생산

연일(일반)
5,000원(1목용)
연일/진분/노랑/주황
빨강/녹색/흰색

전구(5W/8W)
45,000원 [국산]
1BOX: 100개
제조원: 동진전구

연등속지백색 1목용
6cm 3,500원 / 8cm 4,000원
10.5cm 4,500원 / 12cm 6,000원
*1목용일 100개를 만들 수 있음

집게부착PVC도포
@20,000원
(100개)
크기: 8.5x21c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어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051) 011-298962
(주)현대불교인사

마음의 미동조차 없어야 참된 인욕



하지만 '말만 장경을 거꾸로 외워도 생사를 초월하는 일에는 소용 없다'고 하셨지요. 서옹 스님은 늘 자상하시고 모든 면에 관찰력이 뛰어났고, (임제록) 특강 하시는 걸 좋아하셨지요. 운허 스님은 바다처럼 포용력이 큰 분이셨고, 운허 스님과 경봉 스님께 강(講)을 받아 내가 나름의 안목을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도인(道人)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상하게 볼 것도 없고 오로지 법(法)의 잣대로 살피야 합니다. 겉으로 본 단견과 편견으로 평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의 절친(切親)이자 은사인 청담 스님의 가르침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다.

"큰스님은 6바라밀과 인욕, 하심 공부와 포교의 원력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늘 자상하셔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리지 않고 한 사람이긴 백 사람 가리지 않고 법문하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한번은 건강이 걱정돼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법문 듣는 사람의 근기를 보면서 차별을 두고 설법하는 것이 옳은 방편 아닙니까?"

"니가 보기에 사람의 근기에 차별이 있어 보이겠지만, 내가 보긴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입을 다문 적이 있습니다."

'인욕(忍辱)보살'로 유명한 청담 스님의 제자답게 인욕과 하심이 몸과 마음에 배인 혜정 스님. 스님이 배우고 실천해 온 '인욕'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인내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세속에서 생각하는 인내와 참된 인욕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감정을 참는 건 인욕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나를 완전히 잊고 마음 자체에 움직임이 없어야 참된 인욕입니다. 사랑

화 났을 때 참는 것 인욕 아나 부처처럼 나를 완전히 잊어야

하고 미워하는 마음, 칭찬과 비방에도 흔들림이 없어야지요. <금강경>에서도 부처님께서 팔 다리가 잘리는 고통에서 무심하셨듯이, 참된 인욕은 성불한 경지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입에 올리는 '인욕' 하나도 실행하기가 어렵다. 하물려 팔만 장경에 등장하는 무수한 법문들을 삶속에 실현한다

는 것을 말해서 무엇하랴. 하지만 이론은 반대할 지언정 실천은 오히려 간단할 지 모른다. 독자들에게 주는 혜정 스님의 당부 속에 골자가 들어 있었다.

"흘러가는 시간은 회복이 불가하니 함부로 살아선 안됩니다. 하루, 한 시간을 살아도 참되게 살아야지요.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보살정신 아니겠습니까. '도인은 못될지언정 부처님이 보여주신 깨달음의 길에서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쉬지 말고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혜정 스님은 노구를 이끌고 삼각산과 저잣거리 사이에서 참다운 삶을 몸으로 보여줄 것이다. 평범 속의 비범은 한결같은 마음과 오롯한 실천에 있음을 문수굴 안의 문수보살이 알려주는 것만 같다. '날마다 산등성이를 다니면서 산을 찾지 말라. 전삼삼 후삼삼(前三三 後三三)을 묻지 말지어다.' 용과 뱀이 섞여 있는 마을에서 용으로 살 것인가, 뱀으로 살 것인가? 하하하!

글=김성우(작가 본지 논설위원) 사진=박재완 기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三無 스님

'삼몽사'라는 서산 스님의 유명한 시가 절로 나온다.

주인몽설객(主人夢說客) 주인은 김순에게 어젯 밤 꿈 얘기하고

객몽설주인(客夢說主人) 김순은 주인에게 어젯 밤 꿈 얘기하네

금설이몽객(今說二夢客) 지금 꿈 얘기 하는 두 김순도

역시몽중인(亦是夢中人) 역시 꿈 속의 사람이라네

우리는 분명 꿈을 꾸고 있다. 어젯밤의 꿈이 춘몽이라면 인생살이 생·노·병·사의 한 테를 두르는 경우 대몽이라 함이 무방할 것이다. 일상 겪는 일이지만 춘몽같이 허탈한 일도 없는 듯하다. 고대광실에 살기도 하고 고관대작이 되기도 하는 일련의 일들이 참나에 지나지 않는 춘몽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몽도 춘몽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단순히 시간의 장단의 차

일표일납(一瓢一納)이라 했던가. 수행자는 표주박 하나와 누더기 한 벌이면 족하다는 말이다. 이 일표일납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탈속한 수행자라 하기에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쉼 없이 무엇인가를 갖는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이다. 그런데 갖는다는 것이 그 만큼 부자유스러울 때가 있다. 대개 내가 물건을 이용하기보다 물건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역대 성인의 삶이 모두 그렇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이 그렇다. 역사는 변치 않는 강한 교훈을 주고 있다. 당시 누리고 살았던 삶 보다 빈궁하고 쪼들린 삶에 자족할 줄 알았던 이들의 모습이 인류의 귀감이 되고 역사의 바른 지표가 되고 있다. 이것은 무소유의 역리(逆理)이니까. 그러므로 수행자는 아무 것도 갖지 않아야 참으로 부자인 것이다. 골동

필요에 의한 소유라면서 마음 뺏겨서야 아무것도 갖지 않아야 온 세상을 갖는다

이다. 그러기에 <금강경>에 사구계로 설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전에 맴돈다.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여로여역전(如露亦如電) 응작여시관(應作如是觀)

일체의 유위법, 즉 중생계의 생로병사와 빈부귀천 등은 꿈, 허깨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만 그 수행이 올바른 관찰이다.

범어로 꿈을 꾸다는 동사는 svap라 한다. 이 말은 '잠을 자다' '잠에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명사형은 svapna이다. 즉 잠이라는 말이 된다. 꿈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잠을 자야만 꿈을 꾸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잠자지 않고도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한다. 세상살이 모두가 꿈이라고 인연 지어진 모든 유위의 것들은 모두 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위법이 다 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수는 인식에 머무는 뿐이고 그에 맞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은 듯하다. 꿈속에서 누린 부귀영화는 영원을 노래하지 못 하듯 한 인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품 수집가라고 한 들 죽어서 값진 찻잔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하고, 부잣집 마나님도 값진 진주 반지 하나 끼고 가지 못한다.

몇 일전 필자는 스승을 잃었다. 평소 안빈낙도의 삶을 즐겼다. 그 흔한 시계 하나 없었다. 변변한 통장도 없었다. 추운 겨울을 나기위한 북주갑투 하나 없이 겨울을 나곤했다. 추운데 애 방한모를 쓰지 않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삭발한 머리가 출가자의 징표인데 모자를 쓰면 상표가 가려지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었다. 그도 그럴 일이다. 시계와 통장과 모자가 없는 스승에게 생전에 삼무(三無) 스님이란 별호를 붙였던 기억이 난다.

'인생은 빈 술잔, 주단 깔지 않은 층계'라고 쓴 시인의 말이 있다. 비단 깔지 않은 층계를 거친 숨 몰아쉬며 오르내리다 지쳐 그만 쉬고자 스스로 곡기를 끊었던 참 도인. 속진의 때 털털 떨치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고향 길을 찾는 나그네에게 하는 문이 파랗게 열려 있었다. 나부끼는 반장에서 스승의 유언을 읽는다. 꿈속에서도 그대에게는 할 일이 있다. 포교, 역경, 교학연찬에 매진하라. 이 길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접경이니...

원앙생! 원앙생! 메아리는 아련히 허공을 맴돌고 있을 뿐.

동국대 선학과 교수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교육상담(교무실) (054) 751-3721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특징: 가볍고 설치 용이

원터치 고리용

(인등) 소원성취 및 시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고추전구 12W (법당용) 방수구 26E (외곽용)

불제대완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 (정품)

- ▶ 방생, 탐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노랑·빨강

청사초롱 및 초롱 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당등), 영기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